

CNOOC, 원유 유출로 생산 차질

2011년 예상 생산량 하향조정 ... 2011년 말까지 조업재개 어려워

중국 평라이 19-3 유전의 기름유출 사고로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2011년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중국 보하이(渤海)만 평라이(蓬萊) 19-3 유전은 미국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의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 China와 CNOOC가 운영을 맡아왔으나 2011년 6월 초부터 원유 유출이 시작됐고 일대 해역 5500km²가 오염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사분석기관인 샌포드 C. 번스타인(Sanford C. Bernstein) 등의 분석기관들이 평라이 유전의 조업 재개가 2011년 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10월7일 보도했다.

CNOOC의 1일 석유 생산량은 사고 후 4만배럴이며, 사고 전에 비해 2만2000배럴이 줄어든 것이다.

석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CNOOC는 2011년 예상 석유 생산량을 3억6500만배럴에서 3억3100만배럴로 하향 조정한다고 8월24일 발표했다.

유전 운영을 맡고 있는 코노코필립스는 8월 말까지 유출된 원유의 회수작업을 끝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당국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9월2일 유전운영 중단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07>